









헤레라사우루스
(*Herrerasaurus*)

- 식성 육식성
- 발견지 남아메리카
- 시대 후기 트라이아스기
- 크기 3-6m

폴라칸투스
(*Polacanthus*)

- 시대 중생대
- 발견지 영국
- 시대 백악기
- 길이 4m

20195







공룡 [dinosaur, 恐龍]

파충강 조룡아강의 용반목 및 조반목에 속하는 화석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룡 (두산백과)

오늘날에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후기에 시작하여 백악기까지 번성했던 육상 파충류의 한 집단으로 그 어원은 삼국보편 1841년에 영국의 고생물학자 리처드 오언이 화석으로 나오던 모든 파충류들을 통칭하여 dinosaur 즉 공룡목이라는 명칭을 제안했으나 현재는 분류학적 용어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Dinos는 '무시무시한, 강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saur'는 '그리스어 'sauros'에서 파생된 것으로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중생대에 번성했던 파충류에는 공룡 외에도 수중에서 생활하던 수장룡, 하늘을 날아다니던 익룡이 있으며 모두 백악기 말에 멸종하였다.

공룡의 분류학적 위치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파충강 (Reptilia)에 속하는 동물 중에 조류(鳥類)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거북이류 (Testudines) 다른 파충류와 조류가 조류와 가까운 집단으로 생각된다. 공룡은 다 세분하여 용반목 (Saurischia)과 조반목 (Ornithomiridae)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골격의 모양에 따라서는 다른 것일 수 있다. 또한 오늘날의 새의 모양에서 볼 수 있는 새들은 모두 용반목에서 진화하였으며 조류는 조공룡에서 비롯되었다.

공룡의 멸종

공룡은 6500만년 전 백악기 말에 갑자기 사라졌는데, 당시의 기후 변화가 원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룡이 멸종하기 전까지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어, 공룡의 멸종 원인에 대해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